

비구니 스님 참종권 확대 이번에는 성사될까

제197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는 지난 18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결산총회인 제197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총 81명의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65명이 참석한 이번 임시회는 개원식에 이어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한 이날 개원식은 신임 중앙종회의원 탄공스님의 의원 선서,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를 남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종회"라며 "다불어 지난해 부결된 호계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승가공동체를 형성하는 한편 중한종법 특위, 총무원에서 발의한 안건도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는 이번 중앙종회에 지난해 중앙총무기관 결산승인과 함께 승려복지법, 법인법 등 종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잘 살펴서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문제는 지난해 여

지난해 결산검사의 건 비롯

총무기관 한해 재정 점검

초·재심 비구니 포함 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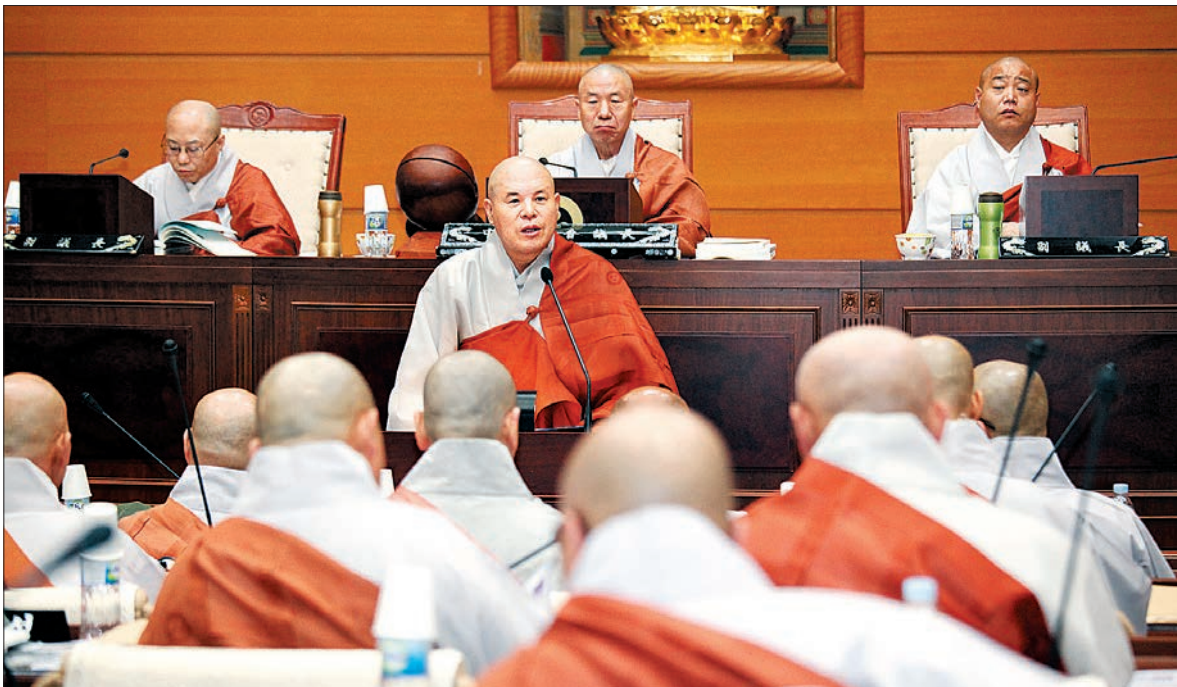
각종 종법 개정안 다수 상정

원로의원 추천, 종립학교 위원

소청심사위원 선출도 '관심'

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원만하게 논의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불기 2557(2013)년도 중앙총무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중헌 개정의 건 △중법 제·개정 의 건 △승무보고의 건 △종책질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상임분과위원장 선출의 건(원학스님 호법분과위원장 사직)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무진장 대중사 입적) △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법준스님 임기만료) △종립학교위원 선출의 건(장명·종호스님 임기만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보선의 건(총립실사위원장 원학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97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종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여러 법안을 잘 살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님 사직,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를찾기위한특별위원장 원학스님 사직) △불기 2557(2013)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계종 교세확장을 위한 종단 재원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이다.

이 가운데 중헌 개정의 건은 사찰법에 맞춰 사찰 및 경내지 등을 정의한 안건과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의 자격을 법제 종사, 승남

35년, 연령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 한 안건, 초심·재심위원회 비구니를 포함시킨 개정안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중법 제·개정 의 건에는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 △의례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등 지난 종회 이월안건을 비롯해 △총무원법 개정안 △법인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승려복지법

개정안 △청소년·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중앙종회는 임시회 개최에 이어 안건채택 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불기 2557(2013)년도 중앙총무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를 선언했다. 이번 임시회는 19일 오전10시 속개된다. <3월 18일 현재> ▶관련기사 2면

허정철 기자 hjo@bulgyo.com

현대사회 이끌 교화인 ‘양성’

교육원, 법계별 연수교육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법계별 연수교육이 승남에 맞는 스님들의 위상을 고민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원은 이달 초 종단리더십실무과정을 시작으로 스님들이 자신의 승남에 맞는 소양을 갖춘 수 있는 법계별 연수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17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출가한지 10년에서 14년 사이의 스님을 대상으로 한 '종단리더십 심화과정 I'이 임제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찰 주지로서 신도를 교화하고, 상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39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2박3일간 이곳에서 광범한 한겨레 대가자의 '한국불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총무원장과 신도포교,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부했다.

종단의 법계제도가 승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했다면, 처음으로 시행된 법계별 연수교육은 출가자로서 식견을 넓히고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스님은 "연수교육이 도입된 이후 출가자 재교육율이 높아지면서 스님들의 안목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법계별 교육을 통해 시대정신을 포착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화인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가한 스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아산 해원사 주지 현중스님은 "기존 연수교육은 참가한 스님들 간 승남 차가 커서 강의 기준이 어갈 수 있는 교화인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는 1~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려면, 5년 내 1회씩 해당 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공주=어현경 기자



종덕·정덕 스님을 대상으로 한 '종단리더십 심화과정 I'에 참석한 스님들 각 강의를 듣고 있다.

필리핀 태풍피해 2차 지원

종단, 아라우부대와 합의각서 체결

종단이 지난해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 긴급구호를 실시하며 자비행을 펼친데 이어 2차 지원을 통해 필리핀 재건에도 힘을 보탠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을 찾아 태풍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재해복구에 나선다. 지난해 1차 구호활동이 생필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긴급구호에 치중했다면 이번 지원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재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군 '아라우부대'와 함께 필리핀 타나와 및 톨로사 지

역 내 초등학교 8곳 재건복구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동행은 칸바리사라, 부락 초등학교 등 지원대상 학교 8곳을 돌러보고 아라우부대와 재해복구공사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해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필리핀을 돕기 위한 많은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필리핀 2차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2차 지원은 지붕이 없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교 재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불교계가 한국군과 함께 필리핀 교육환경 재건과 복구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불교는 성형수술 어떻게 보나...

불교평론 "개인 선택 아닌 사회문제 접근" 주장

최근 성형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형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수행하라 하는 가르침이 불교적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모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어떤 부분만 성형해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외모보다 마음'이라는 가르침보다 성형이 이 사람을 더 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형문화에 대한 불교의 대응은 복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림여성문화운동단체 가베울 대표인 김정희 씨는 <불교평론> 57호에 실린 '성형 요구하는 현대문화와 불교'라는 특집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성형문화에 대한 근본주의적 처방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중근기, 하근기 중생에게 성형을 통한 자신감 회복이, 이 자신감도 망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성형문화를 불교가 접근해야 할 사회문제로 본다면, 건강상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토론과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인 정보는 전문한 채 고통과 흥터 없이 고칠 수 있다는 광고만 즐비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종교는 성형문화의 극성을 완화시키는 실질적 영향력을 의미 있게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성형열풍 현상이 성차별의 일부임을 지적하고, 불교계가 이 문제에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남성 성형인구도 생겨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형은 남성의 시선에 종속된 여성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불교 시선으로 볼 때 성형은 외모 가꾸기에 착(着)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설명했다. 무상한 변화를 붙잡을 수 없으니 못마땅해 보이는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관하고, 몸·물질에 대한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당사자의 근기에 맞춰 복수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성형을 다 인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형과 외모 가꾸기 인정선을 결정하는 잣대는 '건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행 기념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불교신문은 지난 1960년 1월1일 창간하여 불교계 정상의 주간언론 매체로서 54년 동안 불법종교와 불교의 권익보호, 교계여론의 바른 계도를 선도해왔습니다. 불교신문이 창간 54주년을 맞는 올해 <불교계 최초로 지령3000호 발행>이라는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현대 한국불교 산증인이었던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간을 기념하여 그 숫자에 담긴 의미를 조명하고 역사성과 전통을 알리는 의미에서 3000배 철야정진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서 나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되새기고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모연된 모연금을 국내·외 난치병 환아들에게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진행일시 : 2014. 04. 19. 토 ~ 04. 20. 일

■ 장 소 : 조계사 외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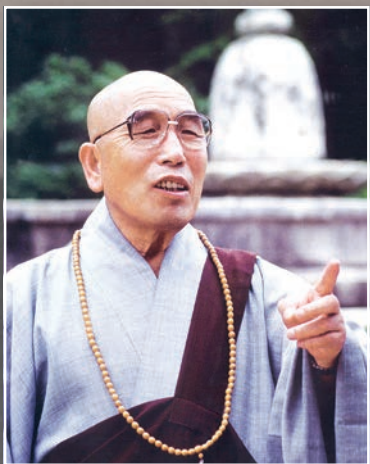
■ 동참문의 : 02)723-5101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불교방송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종정

노천당 월하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 및 학술세미나



● 다례재 및 일대기 봉정식

| 장소 | 통도사 설법전
| 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 학술세미나

- 원로의원 월탄 대종사 - 기조연설(한국불교의 정화이념과 월하스님)
- 소운스님 - 통도사 금강계단과 월하스님의 계율정신을 통한 수행
- 하춘생 교수 - 월하스님의 포교인식과 실천이념
- 이해숙 교수 - 근대불교복지의 회고와 전망

| 장소 | 통도사 해장보각
| 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오후 1시

● 기념 특별전 "영축산에 날 뜨거든"

| 장소 |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 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 4월 25일(금)
| 문의 | 통도사 총무소 055)382-7182

노천문도회 회장 중봉 성파 합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